

4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제

충현의 만나

2007

가정예배

레위기 · 사도행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4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레위기 · 사도행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③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나되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 ⑥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은총의 자녀가 되어서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총현복지관이 복음으로 더욱 견고하여지게 하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슬펐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에는

놀라운 은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문과 조롱, 살이 찢리는 고통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 생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십자가의 증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본문은 7일 동안에 걸친 위임식 제사를 마친(레 8:33) 제사장들이 제8일째에 이르러 마침내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그 첫 제사를 드리는 취임식 장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린 후에(8~14절),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15~21절)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 없이 바로 우리를 위한 제사(십자가를 지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배에 앞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1~4절)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이기에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바로 서야 할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삶까지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런 중보의 원리는 후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흠 없는 완전무결한 대제사장으로서(히 4:14,15)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중보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 된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이러한 중보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된(벧전 2:9) 우리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며 나아가 주위 지체들도 회개와 헌신, 친교와 봉사의 자리에서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와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레 9:6)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을 본받아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가족연합예배에 출현의 모든 가족들이 참석케 해주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첫 제사를 드리는 취임의 날에 여호와와 명령을 어기고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단의 향을 사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여호와와 불로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이나 뜻에 위배되는 예배나 헌신은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계 5:8) 우리는 기도나 헌금, 찬양, 헌신을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드리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1,2절) 제사의 근본정신은 결코 소의 피나 수양의 기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의 근본정신은 그 속에 깃든 믿음과 순종과 헌신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믿음과 순종의 도를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제사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의 삶이 없는 모든 제사행위는 여호와께 가증스러울 뿐입니다.(사 1:11~13)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술을 삼가야 하며,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9,10절)

따라서 최선의 삶은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 보다 앞세우는 그 무엇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마치 어린 아이처럼 말씀이 인도하는 데까지 따라가고, 말씀이 멈추는 그곳에 멈추는 “말씀 그대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 10:2)

기도 제목 ①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한 자세로 예배하도록 도와 주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지금까지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으로 각종 제사제도와 그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1~10장) 이제 이 장부터 15장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정결한 생활을 위한 새로운 지침들이 소개됩니다. 정결법이란 음식, 출산, 문둥병, 각종 성생활 등 인간의 기본적 생활의 여러 측면을 정결과 부정으로 규정하며, 부정하여졌을 경우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까지 지시한 의식법의 한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장에는 식생활에 관계된 규례로서 먹거리에 있어 정하고 부정한 동물에 관한 엄격한 분류를 보여줍니다. 즉, 이 장에는 먼저 짐승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한 것(1~8절), 물고기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한 것(9~12절), 조류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한 것(13~19절), 곤충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한 것(20~24절),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의 정하고 부정한 것(29~43절) 등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매우 상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음식의 정·부정 규례를 만드신 것은, 평범한 일상의 성결이 영적이고 종교적인 성결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44,45절) 실로 하나님은 선민과의 거룩한 교제를 위하여 성별된 삶과 정화된 생활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 백성의 생명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불경건한 백성들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과연 현재 나의 삶은 정결하며 거룩한가?' 하고 스스로 성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레 11:45)

기도 제목 ① 죄로 가득찬 세상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② 충현의 젊은이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회개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본문/레 12장 찬송가/212장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음식물에 대한 정·부정의 규례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셨던(11장) 하나님은 이제 12장에 이르러 신생아를 낳은 산모에게 적용되는 규례를 세우십니다. 원래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뜻이었으나(창 1:28), 타락 이후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자녀의 출산이 고통과 수고의 일로 변하면서(창 3:16), 출산에 따른 분비물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결케 해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아 산혈(産血)과 분비물로 더러워진 여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으며(1~5절), 부정기간이 끝난 후 정결의식을 치르고 난 후에야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6~8절) 정결의식에 반드시 필요한 속죄제에는 빈부의 격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의 예물에는 비록 그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속죄를 위한 대속 제물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결의식에 관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굴레를 벗는 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뿐입니다.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께 아뢰며 그 분 앞에 서슴치 않고 자신을 내어 놓는지' 돌아 보아야 합니다.

“자녀 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레 12:6)

기도 제목 ① 하나님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소서. ②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헌신을 다짐하는 교육위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맡은 교사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사람 몸의 문둥병 진단규례와 옷의 문둥병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둥병은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문둥병(한센씨병)만이 아니라 중세가 심각한 각종 피부병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장 전반부는 피부중세에 의한 문둥병 진단(1~8절), 난육(爛肉:살이 썩어 들어가는 부위)에 의한 문둥병 진단(9~17절), 종기에 의한 문둥병 진단(18~23절), 화상에 의한 진단(24~28절), 문둥병자의 격리 규례(45,4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후반부 47~59절은 색점에 발한 의복의 문둥병 진단 및 처리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운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45절) 이것은 문둥병자에게 요구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롬 7:15~21) 그러나 율법은 그 이상의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 즉 죄와 그 대가로 주어지는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제시하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복음 안에서만 문둥병과 같은 죄악에 감염된 우리들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눅 17:12,13)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레 13:3)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치유하여 주소서. ②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신체 각 부위에 발생한 문둥병 증세와 의복, 가족류에 생겨난 문둥병 증세(일종의 곰팡이류)를 관찰, 진단하는 방법을 제시했던 13장에 이어 이 장에서는 회복된 문둥병자가 정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정결의식(1~32절)과 주택에 발생한 문둥병 증세를 다루는 방법(33~53절) 및 문둥병에 대한 결론(54~57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완치된 후 2차에 걸친 철저한 정결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1차는 백성이 거하는 진 밖에서 제사장의 집례 하에 문둥병의 완전한 소멸을 확인하고 정결례를 행합니다.(1~9절) 제2차는 진 안으로 들어온 완치자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기다린 후 제8일째 되는 날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문둥병이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10~20절)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정과 죄악을 심히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비록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다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요일 1:9)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죄악과 죽음의 상징인 문둥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정결의식은 제사장이 부정하게 된 곳에 피를 일곱 번 뿌림으로써 수행되었습니다. 이는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의 보혈과 효력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습니다.(히 9:22)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상태를 항상 점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레 14:2)

기도 제목 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 깨어진 영적 교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②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는 성급요일이 되게 하시고,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진심으로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앞선 13,14장에서는 죄악으로 상징되는 치명적인 질병인 문둥병의 판별법과 완치된 문둥병자가 정상인으로 다시 생활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결의식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15장에서는 갖가지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과 그같은 부정에서 완치된 자가 치뤄야 할 정결의식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이 장에는 남자의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유출병과 그 정결례(1~15절), 성관계나 혹은 몽정(夢精)등으로 인한 자연적인 설정자(泄精者)가 치루어야 할 정결례(16~18절), 여성의 정기적 자궁 출혈인 월경에 따른 정결례(19~24절) 및 월경 외에 여성의 비정상적인 분비물로 인한 부정과 그 정결례(25~33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녀에게서 생겨나는 유출병과 그와 유사한 증상들은 모두 사람의 생식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창조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생명과 번성에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증상은 성적인 방종으로 인하여 생겨날 수 있는 것으로서, 생명의 질서와 거룩에 위배되는 일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저해하는 치명적인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유출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듯이(7절), 우리는 우리가 죄에 물들 때마다 이를 속히 깨닫고 우리 영혼의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눅 9:23)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짓과 위선이 아닌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찌니라”(레 15:12)

기도 제목 ① 범죄한 영혼들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새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②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11~15장은 선민의 생활에서 각종 부정과 그 부정에서의 정결방법을 소개함으로써 거룩에 대한 의지를 복돋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대속죄일 규례를 소개합니다. 이 장은 대속죄일을 맞는 대제사장의 성결의식(1~5절)과 대제사장 자신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사(6~22절)와 대속죄제사를 마친 이후의 정결의식(23~28절) 및 매년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지킬 것에 대한 명령(29~34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속죄제사는 평상시에도 계속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속죄일을 통하여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에게 죄악을 회개하게 하신 것은 비록 인간이 순간순간 지은 죄를 회개한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속죄일은 인류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소망하게 하는 은혜로운 역할을 합니다. (히 7:26~28)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에서 홀로 제사를 드린 아론을 통하여 홀로 서는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철저히 혼자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 홀로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된 사죄의 은총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레 16:30)

기도 제목 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소망하게 하소서. ②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와 부정을 말끔히 청산하는 정결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1~16장) 이제부터 본 서의 마지막 장(27장)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거룩을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장은 희생 제물로 사용될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을 잡을 때의 유의사항과 이를 범하거나 헛된 우상숭배를 자행할 때의 엄한 징벌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1~9절) 또한 생명 있는 고기를 피 채 먹지 말 것과 직접 잡지 않은 고기를 취식할 때의 유의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10~16절) 이처럼 하나님은 음식물에 관해서조차도 세밀한 규례를 마련하심으로써 인간의 불의한 욕심을 억제시키고 혹 발생할지도 모를 우상숭배의 죄악을 미연에 방지하며 더욱이 생명의 존귀성을 일깨워주고자 하셨습니다. 매우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거룩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영원히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 흘림은 인생을 위한 것이며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순결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믿는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중심의 삶과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 단호한 우상 배격을 통해 참된 경건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레 17:9)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형제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려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성 윤리의 기본지침으로서 죄악으로 심히 오염된 애굽과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성적 풍속도를 좇지말라는 강력한 명령(1~5절)과 추악한 성 범죄인 근친상간의 절대금지(6~18절) 및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가증하고 추악한 이방 성문화의 답습금지 명령(19~23절)과 이 모든 금지된 명령을 어겼을 때 받을 처참한 형벌(24~30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性)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원리에서 벗어나 이를 남용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도구로 사용하며, 저급한 욕망이 요구하는대로 방임하면 불행과 파멸이 따릅니다. 더욱이 이 성의 타락은 단지 육체적 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그 영혼까지 좀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좇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3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2)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간음, 우상숭배, 동성연애와 같은 것들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육신의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참된 성결과 거룩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레 18:3)

기도 제목 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은총이 있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께서 영육의 감관함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하여 거룩과 부모공경과 우상금지 및 희생제사와 관련된 법규들(1~8절)을 소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하여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취할 이삭을 추수하지 말 것과, 흠치는 일과 거짓언행을 하지 말 것, 험담을 금할 것과 타락하고 음란한 이방문화를 받아들이지 말 것, 이웃을 사랑할 것(9~37절) 등을 명령합니다. 결국 이 법규들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2대 명령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3~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겸손히 순복하는 행위와 일치합니다. 둘째,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셋째, 헛된 신상숭배를 금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서 우상으로 물질의 신, 명예의 신, 정욕의 신을 만들고 새기면서 음행하듯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당신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에서는 레위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을 다시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증스런 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일시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순결을 위한 것입니다. 1~2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가 있습니다. 첫째, 인신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 나라들은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무당을 따르는 죄입니다. 셋째, 부모를 저주하는 죄입니다. 이는 부모에게 악담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넷째, 음행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규례를 지키어 행하면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부의 죄악들로부터 자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신접한 자나 무당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거룩해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케 하는 여호와니라”(레 20:8)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성령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주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십자가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주로 제사장의 성결과 완전에 관하여 언급하는데, 거룩을 얻수 해야 할 제사장이 시체에 접촉했을 경우의 대처법(1~6절), 정결한 결혼과 제사장 자녀의 성적 순결준수 명령(7~9절), 모든 백성의 종교와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제사장에게 특별히 요청되는 까다로운 준수 명령(10~15절),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완전한 신체조건(16~24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하나님 앞에 선 자가 갖추어야 할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정결요소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거룩입니다.(1~9절) 제사장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거룩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간격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합니다.

둘째는 무흠입니다.(10~24절)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부패한 죄인인 인간을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흠 없고 거룩하신 분으로 완전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거룩과 무흠을 요구하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거룩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성결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룩과 성결로 더럽혀 주십니다.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찌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레 21:15)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② 선교파송을 준비하는 팀들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현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하나님께 드려질 완전한 제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흠 없고 깨끗한 제물을 바치도록 지시하셨습니다.(17~21절) 이어 제물로 합당치 않은 것(22~25절)에 대한 지시와 제물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무자비한 방법을 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제물을 통한 백성들의 헌신이 온전한 신앙을 바탕으로 두고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용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흠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제물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흠 없는 제물 속에는 드리는 자의 신앙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만큼 드리는 자의 성결과 정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릇된 제물은 하나님께 열납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드리는 자의 생명까지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호를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은 완전하고 흠이 없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당신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정성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으로 흠이 없는 영적 예배입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22:31)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영적 예배가 되게 하소서. ② 남전도회 중심의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동참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에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영구히 준수해야 할 거룩한 절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매주 어김없이 지켜가야 할 안식일(1~3절)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지켜야 할 3대 절기인 유월절(4~14절), 오순절(15~22절), 초막절(33~44절) 및 신년절인 나팔절(23~25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예표하는 대속죄일(26~32절) 등에 관한 규례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위의 26~32절을 살펴보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지는 절기로서 일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죄 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속죄일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속죄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단번에 드림으로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령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각종 절기와 성일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뜻을 기억하는 의미있는 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당신도 주일예배 때만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읽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와 절기는 이러하니라”(레 23:2)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각 교회학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증거되어 어린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에는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가 자신들의 전 재산을 교회 앞에 모두 바친다고 하면서 그 중의 일부를 감춘 사건과 사도들에 대한 새로운 박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바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산 중에 일부를 감추어 두었는데, 이 일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죄목은 성령을 속인 것이었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3절)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과연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곧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을 분명히 가르치신 하나님의 심정을 잘 헤아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11절)

이런 가운데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났고(12절 이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주어 사도들은 감옥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려고 할 때 “사도들의 표적과 증거가 하나님께서 났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39절)이라고 증거합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행 5:3)

기도 제목 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성도들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초대교회는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섬겨야 할 사람들은 많은데 사도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던 것입니다.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유대땅에 돌아온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고, 사도들은 이 일을 공평하게 처리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헬라 문화권에 태어나 그 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고, 따라서 당시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시급한 일은 그 중에서 고아들과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생겨났고, 사도들은 공평하게 이 일을 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供饋)를 일삼는 것”(2절) 사도들에게 옳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4절)에 전념하기로 하고, 구제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바로 일곱 명의 집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격조건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교회의 일꾼될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받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행 6:10)

기도 제목 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② 2007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의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 일을 잘 감당했으며 복음 전하는 일도 충성스럽게 행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를 시기하여 신성 모독죄로 모함했고, 그는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 앞에 고소를 당합니다.(행 6:8~15) 그러나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을 압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행 6:10)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지혜와 담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놀라운 용기와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자 그들은 흥분하여 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56절)고 말하자,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성밖으로 내친 후에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제반 일을 맡은 집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복음전파는 목회자나 선교사 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충만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로 나아갈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행 7:55)

기도 제목 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② 예배위원회에 세움받은 일꾼들이 예배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정결한 그릇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적과 표적도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가르침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던 빌립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가사지방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합니다.(26절) 가사지방은 광야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곳으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권세 있는 내시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시는 틀리는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왜 그런 명령을 주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우리는 늘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내시는 혼자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31절) 이것이 그 사람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복음을 믿게 되었고 세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 사건은 단지 내시 한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후에 에디오피아 전역에 아니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먼저 깨달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읽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해야 하며,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행 8:26)

기도 제목 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받게 하소서. ② 총현의 장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스데반의 순교현장에서 그의 죽음을 당연시했던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결박하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제거하는 일을 매우 의로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자청했던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예수님은 이런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닫혀 있고 강박한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울을 친히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포박하러 왔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사울은 '위험한 사람'이었으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었습니다.(15절)

당시 사울은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흑암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며 영적인 흑암에 빠져 우상을 섬기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음 증거의 그릇으로 삼기 위함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행 9:4)

기도 제목 ① 하나님께 부름 받은 목적을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2절)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볼 때 고넬로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넬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는 베드로를 초대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명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로의 집에 도착하여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자세히 설교했습니다. 고넬로도 신앙이 좋은데, 왜 굳이 그런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요?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온전히 믿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로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眞髓)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확고히 서 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여진 환상(9~16절)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계획을 예표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행 10:47)

기도 제목 ①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소서. ② 선교위원회에 세움받은 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에서 우리는 복음이 이방 땅에 증거되는 초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전반부(1~18절)에서는 고넬료의 개종사건 이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사건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큰 비난거리였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처럼 많은 유대 신자들 역시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적이었습니다. 유대 신자들은 민족적, 종교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과 성령의 강림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증거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후반부(19~30절)에서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교회의 설립과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있었던 박해는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을 각지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안디옥교회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교회는 즉각적으로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바나바는 사울을 불러 함께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교회의 지원을 힘입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교회의 은혜를 입은 안디옥교회는 그 후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물질로 예루살렘교회와 성도를 돕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यो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행 11:24)

기도 제목 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② 학습·세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안디옥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무렵, 예루살렘교회는 또 다시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헤롯이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을 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헤롯의 교회탄압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박해보다 더욱더 노골적이며 가혹했습니다. 여기에서 '헤롯'은 예수의 탄생 때 유아학살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마 2:16)의 손자로, 헤롯 아그립바 1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지도자를 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헤롯은 먼저 12사도 중 한 사람이며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그 일을 보고 기뻐하자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 죽이고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죽임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헤롯의 계획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함으로써 실패하고 맙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당시의 교회가 어떻게 박해를 감당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7,23절) 기도는 성도와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역사는 크고 놀랍습니다.(렘 33:3) 한편,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던 헤롯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갑작스런 죽음을 당합니다. 헤롯의 죽음은 박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교회의 승리였습니다. 헤롯의 죽음 이후 교회는 더욱 부흥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행 12:7)

기도 제목 ① 주님의 교회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② 위임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장결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이방지역에 설립된 안디옥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을 통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은 바울의 선교사역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 장은 바울의 제1차 선교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교회가 아닌 안디옥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교회와 성도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이런 예루살렘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첫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사람의 편견과 판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첫 선교는 구브로섬과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먼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인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계획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 13:48)

기도 제목 ① 나의 편견과 판단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당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며 장로님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열매가 눈에 띄게 많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박해도 심해져 갔습니다. 본문은 박해가 극심하여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1~7절)는 이고니온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주의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지방관리들의 핍박으로 그곳을 피해 루스드라와 더베로 사역지를 옮긴 사실을 전하고 있고, 중반부(8~18절)는 루스드라에서 사역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 곧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하여 섬기려고 하는 소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19~28절)는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될 뻔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1차 선교사역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성령의 주도로 복음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나간 것으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바울 자신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본래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열심히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신이 죽음의 위협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셋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핍박입니다. 선교지 곳곳에서 유대주의자들과 이방인들의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힘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행 14:27)

기도 제목 ①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며 감당하게 하소서. ② 봉사위원회의 모든 섬김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가 되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율법적인 전통에 젖어있던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간에 적지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안디옥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문의하기에 이르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많은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선포했습니다.(11절)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의 성령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회의는 베드로의 변론과 함께 야고보의 변론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이자 회의의 의장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변론과 구약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 구원의 당위성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율법의 무거운 것으로 괴롭게 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다만 이방인 성도에게 신앙의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몇 가지 금기사항만 정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초대교회로 하여금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以信稱義)의 원리가 기독교의 기본진리로 확립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회의의 결과 바울의 이방선교의 당위성 및 정당성이 강화되어 바울로 하여금 이후 전도 시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행 15:11)

기도 제목 ① 교회의 모든 기관과 회의가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울은 루스드라와 디베에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제2차 선교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제1차 선교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제지를 받아 소아시아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방향을 바꾸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길마저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바울의 발길을 유럽 쪽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바울의 전도사역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른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누가는 본문에서 성령(6절), 예수(7절), 하나님(10절)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이방전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함으로 전도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는데, 이런 전도자의 순종과 확신 있는 신앙적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전도자들의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잠 16:9)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일과 방법을 주님께 의뢰해야 할 것이며, 주님께서 뜻을 보이실 때는 힘써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행 16:7)

기도 제목 ①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 역시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암비불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마케도냐 지방의 수도이자 발칸 반도의 관문이요 요충지였던 이곳을 바울은 유럽 복음화의 전진기지로 삼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행해진 전도활동이 이 장의 첫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1~9절) 이어서 이 장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 데살로니가를 빠져 나온 바울이 베뢰아에서 얻게된 전도의 결과를 언급합니다.(10~15절) 베뢰아인들은 신사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끝으로 이 장의 후반부에는 바울이 행한 아테네에서의 전도사역이 자세히 다루어져 있습니다.(16~34절) 아테네에서는 단지 몇 명의 사람만이 복음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장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바울의 복음 증거를 방해했는지 알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점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당시 헬라 세계의 사상적 중심지였던 아테네까지 전파되어 장차 전 세계로 확산될 기틀을 다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기초는 언제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지식과 변론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행 17:11)

기도 제목 ①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산 떡을 먹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주변에 사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우상과 철학의 도시 아텐에서의 미약한 선교결과에 낙담한 바울 일행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나 도덕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절망의 도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 장은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상업과 교통 및 정치의 중심지였던 부유한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 일행이 행한 선교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1~17절) 실의에 빠져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9,10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이런 격려와 위로가 늘 함께 합니다.

주님의 격려를 힘입고 바울은 3년에 걸친 제2차 선교여행의 절반에 해당되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도시에서 뭇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부패하여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복음 전도자에게 동일한 신실함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을 교훈해 줍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바울은 마침내 에베소를 거쳐 수리아의 안디옥교회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짓고 제3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18~23절) 바울의 전도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의 전도사역도 바울의 사역처럼 계속되어야 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행 18:9)

기도 제목 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에는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거의 2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곳의 성도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1~7절) 그곳에서 바울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함으로써 많은 결신자를 얻었습니다.(8~20절)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의 아데미여신 숭배자들로부터 결정적인 방해로 받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21~41절)

진실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와 동시에 불의한 자들의 강력한 방해와 핍박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교회와 성도들이 풍성한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될수록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훨씬 더 극렬하게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요 15:18,19)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더불어 악한 자들의 저항으로 방해나 핍박을 예상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일어나 방해하고 핍박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하며 인내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에 참된 복음이 전해지자 우상 만드는 자들이 사도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직 자기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에만 급급하여 대중심리를 자극시켜 사도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나 자신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행 19:20)

기도 제목 ① 참 승리와 복으로 이끌어 가는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재정위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구역예배교재

4월 구역교재 초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보시며 슬퍼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즐거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구나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됩시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330	눅 19:41~44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마음	울며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신다
0406	눅 24:1~12	죽음에서 부활까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0413	눅 24:13~35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0420	마 28:1~7	제자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다
0427	히 7:20~25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 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마음

| 초 점 |

울며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신다

| 찬 송 |

찬송가 130장 왕되신 우리 주께
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하여

| 본 문 | 누가복음 19:41~44

⁴¹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⁴²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
에 숨기웠도다 ⁴³날이 이를찌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⁴⁴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
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
시니라

※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유월절을 닮아 앞둔 주일, 곧 지금의 종려주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타신 나귀새끼를 끌고와서 그 위에 겹옷을 깔고 기뻐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눅 19:38 / 가로되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요 가장 높은 곳에는 이로다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임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단 9:25 /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찌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_____ 이 일어나기까지...

눅 19:40 /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_____ 하시니라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로 붐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미소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눅 19:41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에 예수님은 정반대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홀로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하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할 일들을 이미 내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눅 19:43,44 / 날이 이를찌라 네 □□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각 사람의 영혼을 보며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애통하며 슬피 울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즐거워하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복과 즐거움의 이면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루살렘의 이면을 보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 24:2 / 대답하여 가라사대 _____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_____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은 진실을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속으로 숨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우리의 미소와 웃음 뒤에 감추어진 눈물을 들여다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슬퍼하십니다.

고통을 돌아보며 우시는 예수님

비록 예루살렘은 웃으며 떠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며 우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속 9:9 /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찌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찌어다 보라 네 _____이 네게 임하니 그는 _____로우며 _____을 베풀며 _____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에덴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고통은 끝이 나고 차고 넘치는 기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롬 6:23

평화를 위해 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무리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눅 19:42 /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_____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_____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곳은 위선과 악이 가득찬 전쟁과 대적, 저주의 도시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행복과 명예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뜻을 부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행복과 명예만을 추구하기 원하십니까?

요일 2:15,16

십자가로 路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그리워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울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호산나”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눅 23:34 /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_____ 자기
의 하는 것을 _____ 하시더라 ...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포기하며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됩니다.

※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결단하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께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제 당신께 나아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도 영원한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 간절한 기도 |

1.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
2.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3.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2과 죽음에서 부활까지

| 초 점 |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 찬 송 |

찬송가 15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가 151장 다시 사신 구세주

| 본 문 | 누가복음 24:1~12

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㉒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㉓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㉕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뵈어 믿지 아니하나 ㉖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 가서 구푸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 고난주간을 통해 깨달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한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마 27:63 / 주여 저 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후에 다시 살아나라라 한 것을 우리가 하노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믿는 자들은 그의 '죽음'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마저 죽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눅 24:1

마 27:64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난 후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눅 24:7,8 /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_____
제 삼일에 _____ 하셨느니라 한대 저희가 _____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천사들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눅 24:5

무덤 속에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세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계 1:17,18 / ... 두려워말라 나는 ☐☐이요 ☐☐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찌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과 ☐☐의 열쇠를 가졌노니

만약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직도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음의 고통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마 20:18,19

무덤에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은 돌아갑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눅 24:8,9 /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에서 돌아가 ...

만약 여인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의심하면서 부활의 진리를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너무나 지쳐있었기 때문에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히 11:6

그러나 여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게된 기쁨과 흥분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까?

고후 5:17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_____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_____

막 16:15 /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_____

이 모든 것을 고하니

여인들은 죽은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눅 24:9 / ... 이 모든 것을 열한 □□와 모든 다른 □□에게 고하니

그들은 장례를 치르러 갔지만 전도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그들의 말은 진실한 설교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와 비탄에 잠긴 요한,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을 만나러 갈 것이니 그 분에게 가라고 증거했습니다.

눅 24:12 / 베드로는 일어나 _____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_____ 집으로 돌아가니라

행 1:8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_____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_____ 하시니라

“왜 여러분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죽어 없어질 것만 찾고 있습니까?”

※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믿음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더 이상 무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곳은 이미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고전 15:14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분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무덤에서 벗어나 경이로운 부활의 빛 가운데로 걸어들어 가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2.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3.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3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 초 점 |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 찬 송 |

찬송가 157장 즐겁도다 이 날
찬송가 159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 본 문 | 누가복음 24:13~35

⁽³³⁾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 오리 되는 엠마
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³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
더라 ... ⁽³⁵⁾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³⁶⁾ 말하기를 주께
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³⁷⁾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놀랍고 경이로운 날에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했던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위대한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뛰어야 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한 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마 28:12,13 /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하여 갔다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경이로운 삶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줍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동행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두 제자와 함께 가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눅 24:15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 있던 두 제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겸손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제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눅 24:16 / 저희의 _____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마 28:20 / ...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_____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제자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을 생각했기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눅 24:17 / 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나 하시니 두 사람이 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진정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승리하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낙심하며 슬퍼하십니까?

시 42:5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영혼에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눅 24:32 /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제자들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구원의 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고 그들의 가슴은 기쁨과 감격으로 벅차올랐습니다.

눅 24:31 / 저희 이 밝아져 인 줄 알아보더니 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들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눅 24:33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붙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성령의 불로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엡 1:17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와 □□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모든 문제를 돌아보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소서.
2.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소서.
3.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4과 제자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

| 초 점 |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다

| 찬 송 |

찬송가 154장 예수 부활했으니
찬송가 155장 주님께 영광

| 본 문 | 마태복음 28:1~7

㉞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㉞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 ㉞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㉞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 한 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사흘째 되던 날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을 굴러버렸습니다. 주의 천사는 굴러놓은 돌 위에 앉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마 28:1,2 /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을 보려고 왔더니 큰 □□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번개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미루어 볼때 하늘에서는 천사의 힘이 더 빠르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은 이 모든 일을 보고서 너무 놀라 쇼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 28:3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가장 신비로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여인들의 귀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전갈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들려졌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소식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 28:5,6 / 너희는 □□□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가 여기 계시지 않고 ...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었던 여인들은 죽은 시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인봉했던 돌을 굴러버렸습니다. 죽은 시신을 보러 온 여인들은 주의 천사를 만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군병들은 공포 때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은 이 일이 믿어지십니까?

마 28:4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그토록 소망하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마 28:6 / ...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_____ 와서 _____ 을 보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죽음을 가져다주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영생의 소망을 안겨줍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구원에 대한 소망도, 기회도 전혀 없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롬 4:25 / 예수는 우리 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전 15:17~19 /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천사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눅 24:7 /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_____ 제 삼일에 _____ 하셨느니라 한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요 2:19

요 10:17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한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마 28:7 / 또 빨리 가서 그의 □□□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본 순간 그들의 믿음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강력한 원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고전 15:25,26

의심하거나 질문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로 路

이 여인들이 들었던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며, 절대 불변의 소식, 바로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고전 15:20 /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_____ 잠자는 자들의 _____

롬 10:14,15 /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_____ 듣지도 못한 이를 _____ 전파하는 자가 없이 _____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_____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예수님을 믿습니까?

| 간절한 기도 |

1. 주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2.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3.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게 하소서.

5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 찬 송 |

찬송가 92장 어둠의 권세에서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본 문 | 히브리서 7:20~25

⁽²⁰⁾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²¹⁾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
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
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²²⁾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
느니라 ⁽²³⁾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
하여 항상 있지 못함으로되 ⁽²⁴⁾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²⁵⁾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계보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창 14:18 / _____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_____ 이었더라

레위 족속의 제사장직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레위 족속 중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중재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직을 맡았고 모두 죽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 7:21 / 저희는 맹세 없이 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은 모세의 율법과 레위 족속의 제사장직을 넘겨주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역할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할에 대해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고 영원한 예수님을 멸할 수 없습니다.

히 7:16

레위 족속이나 그 이전의 제사장이 많았던 이유는 죽음으로 인해 그 직분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멸망치 않고, 소멸치 않으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히 7:23,24 /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으로되 예수는 히 계시므로 그 제사 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중보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히 7:25 /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_____을 온전히 구원
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_____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 간구하기 전에 먼저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히 9:12

예수님은 완전하고 죄가 전혀 없는 희생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 값이 단번에 영원히 치루어졌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이유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요 5:24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에서 ☐☐으로 옮겨지니라

롬 8:34 / 누가 ☐☐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하시니 자시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롬 8:38,39 / _____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
조물이라도 우리를 _____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딤후 2:5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히 9:24 /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으로 만든 □□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십자가로 路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요일 2:1 /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_____ 있으니 곧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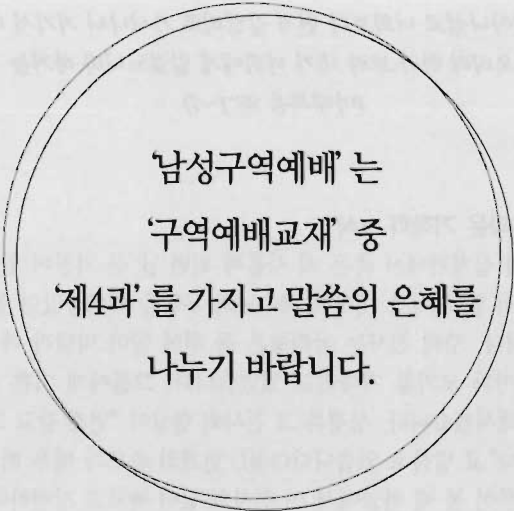
요 1:12 / 영접하는 자 곧 _____에게는 _____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
2. 모든 총현의 성도들이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3.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

^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㉒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 ^㉓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마태복음 28:1~7)

부활, 놀라운 기적의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을 굴러버렸습니다. 주의 천사는 굴러놓은 돌 위에 앉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3절). 번개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하늘에서 이 천사의 힘이 빠르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뒤흔들고 무덤의 돌을 굴러버리는 동안 그의 옷은 여전히 눈이 부실 만큼 희게 빛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에게 있어서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은 이 모든 일을 보고서 너무 놀라 쇼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4절). 그 모든 일이 너무나 생생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가장 신비로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을 이긴 권세에 대해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여인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는 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었던 여인들은 죽은 시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인봉했던 돌을 굴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땅이 흔들렸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공포 때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이 믿어지십니까?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5절) 이 여인들은 죽은 시신을 보러 왔지만 대신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6절)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인들이 처음으로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천사는 말했습니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6절)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이 여인들은 온 세상이 그토록 소망하던 가장 기쁘고 위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우리의 죄는 죽음을 가져다주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영생의 소망을 안겨줍니다. 고린도전서 15:17~19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구원에 대한 소망도, 기회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천사는 선포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6절)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지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하나님의 사자는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눅 24:6,7) 여인들은 그제야 비로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임무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목적을 이해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요 10:17). 천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이 기쁜 소식에 대해 설명하셨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무덤은 비어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천사는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7절)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자 그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본 순간 그들의 믿음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을 직접 보았던 그들이었지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강력한 원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의심하거나 질문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지상명령을 받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들었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며, 절대 불변의 소식, 바로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적인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7년 4월호

발행인 | 김성권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